

성매매 종사자들의 성병감염예방을 위한 콘돔사용 예측요인*

안 양 희**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성 매매 시장규모는 연간 약 25조원으로서 국내 총생산의 약 4.1% 이상에 달하고 있으며, 20~30대 여성인구 중 4.1%가 성 매매에 종사하고 있고, 이는 같은 연령 대 전체 취업인구의 8%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2003). 이러한 비율이 연구조사결과 최소의 수치임을 감안하면, 그 심각성은 크다고 본다. 우리 사회는 성 매매가 매우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현상이면서도 남성위주의 가부장적 사고방식과 문화, 성 매매 종사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 등이 어우러져 사회의 주요 관심사가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2000년 9월 19일 군산시 대명동에서 발생한 성 매매 여성 5명의 희생 화재사건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고, 이를 계기로 하여 성 매매 종사 여성의 인권문제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였고, 성 매매 방지특별법을 가시화시키게 되었다. 즉 성 매매 문제는 여성 개인의 문제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성을 사는 남성들의 문제, 가족의 문제 나아가 사회 전반의 문제로서 국가가 중심이 되어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성 매매종사여성들은 일반여성보다 성병이나 에이즈 감염에 노출될 확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Cohen,

Alexander & Wofsy, 1988; Rosenberg & Weiner, 1988), 성병감염 전파에도 주요 역할을 한다(Lowndes, Alary & Platt, 2003). 그 이유로는 대부분 다수의 성 상대자와의 많은 성관계를 갖기 때문이며, 이는 성 행위 자체의 위험성보다 성 상대자와의 관계상황이 성병 위험에 더 중요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성병은 재발과 새로운 감염에 의하여 에이즈/HIV를 포함한 다른 질병의 감염을 일으키며, 특히 에이즈는 일차적으로 성 접촉에 의한 것으로 성병관리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성병은 특성상 남성보다는 여성들에게 생물학적 문화적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하다(WHO, 2000). 즉 임질과 클라미디아 경우, 감염 여성의 60-70%는 무증상을 나타내며, 성병에 감염된 여성은 자궁경부암 또는 자궁 외임신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그 자녀들은 영아사망 또는 설명이라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감염된 여성들은 문화적으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갖게 되고,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수준과 경제적 수준에 의하여 적절한 건강관리의 기회가 적으며, 결과적으로 감염 위험의 가능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이러한 특성들이 성 매매 종사여성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더욱 크게 나타나며 결과적으로 높은 성병감염율을 나타낸다.

세계보건기구(2003)는 성병예방 및 관리를 위해 무엇보다도 지속적이고 올바른 콘돔사용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을 필수적 요인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성 매매 종사자들은 콘돔사용이 성병이나 에이즈

* 이 논문은 2003년도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교수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간호학과 교수(교신저자 E-mail: ahn57@wonju.yonsei.ac.kr)

감염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으나, 실제 성관계에서 콘돔사용 울이 낮음을 보고하고 있으며 (Ford & Norris, 1993; Kim, Marmor, Dubin & Wolfe, 1993), 인구사회학적 요인(Joesoef et al., 2000; Wilson, Sibanda, Mboyi, Msuumanga & Dube, 1990), 사회 심리적 요인(Ao, Sam, Manongi, Seage & Kapiga, 2003), 그리고 성 상대자와의 관계 상황 요인(Zachariah, et al., 2003) 등이 콘돔사용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 매매 종사자들의 연령은 20-30 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며, 대부분 가출 또는 경제적 이유로 인하여 일을 시작하였고, 학력은 고졸이 가장 많았다(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2003; Sohn & Jin, 1999). 현재 이들에 대한 건강관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보건소 성병관리 표본감시체계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통계보고에 의하면 지난 2001년부터 2003년 사이에 매독, 클라미디아 감염증이 20-29세 여성들에게 급증하였고, HIV 감염자의 수도 1994년에는 90명이었던 것이 2002년에는 400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4). 보건소 성병관리업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병감염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원인에 대하여 다각적 측면에서 찾아 볼 수 있겠다. 즉 국가 성병관련 보건정책, 보건소 성병관리 서비스 및 담당인력, 예방적 차원에서의 성병교육프로그램, 그리고 성 매매 종사자들의 특성 등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 매매 종사자들의 특성을 이해할 때, 그들에게 적합한 정책과 성병관리 그리고 예방서비스 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 전국 3대 성 매매 밀집지역의 하나이며, 그 밀집도가 가장 높은 W 지역의 성 매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콘돔사용 행위에 대한 연구는 절실히 필요하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성 매매 종사자들의 성병감염 예방을 위한 콘돔사용 예측요인을 밝히기 위함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성 매매 종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조사한다.
- 성 매매 종사자들의 역동 심리적 특성을 조사한다.
- 성 매매 종사자들의 성 상대자와의 관계상황을 조사 한다.

- 성 매매 종사자들의 콘돔사용 실태를 조사한다.
- 성 매매 종사자들의 콘돔사용 행위를 예측하는 요인을 분석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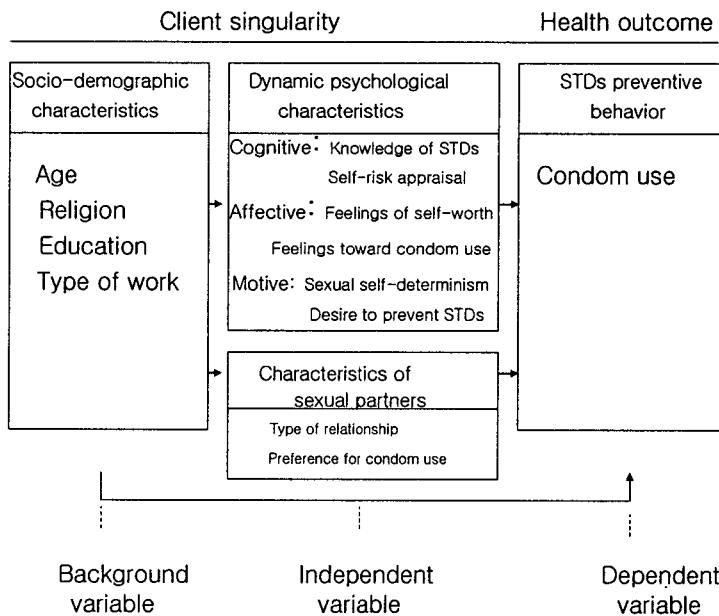
본 연구는 성 매매 종사자들의 콘돔사용 행위를 예측하기 위한 획단적, 서술적, 후향적 연구 설계이다.

2. 연구의 개념적 모형

본 연구는 Cox(1982)의 대상자 건강행위에 대한 상호작용 모형(The Interaction Model of Client Health Behavior)을 기반으로 하였다. 상호작용 모형은 대상자는 자신의 건강관리에 대한 통제력요구가 있음을 기본가정으로 하는 대상자 중심의 간호모형이다. 모형의 주 개념은 대상자 특성(client singularity), 대상자-전문인 상호작용(client-professional interaction), 건강성과(health outcome)이다. 대상자의 특성은 성관련요인과 역동적 심리 요인을 말하며, 역동적 심리요인은 인지, 정서, 동기 등을 포함하고, 이러한 요인들은 전문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행위변화를 유도한다. 또한 인지, 정서, 동기 등의 심리요인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행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변화된 행위들은 건강성과를 이루게 됨을 명제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 특성과 건강성과 두 개념을 활용하여 성병예방행위인 콘돔사용 예측요인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독립변수는 대상자의 역동적 심리특성 변수와 성상대와의 관계상황을 활용하였으며, 종속변수는 성병감염예방행위로서 콘돔사용 유무로 측정하였다. 개념적 모형은 <Figure 1>과 같다.

3.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자는 W 시 보건소에 등록된 성병정기검진 대상자 중에서 본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동의하여 서면동의서에 서명한 여성들을 총 100명 편의표집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은 사회문화적 특성상 연구대상자로서의 민감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성병 정기검진을 위해 보건소에 방문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4.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Rosenberg(1965)의 Self Esteem Scale, Health Self-Determinism Index in Sexual Health(Abel, Tak, & Gortner, 2003), 그리고 Marion, Dancy, Talashek, Howard와 Freels (1999)들이 성병감염예방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 활용하기 위하여 일차 번역/역 번역 후에 예비조사 및 타당도 검토를 거쳤으며, 우리 상황에 알맞게 수정 활용하였다. 번역과 역 번역은 이중 언어 (한국어, 영어)를 구사하는 미국 일리노이대학교 박사과정 학생 2명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예비조사는 보건소 정기검진 대상자 중에서 무작위 선택(random selection)을 하고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수행되었으며, 타당도 검토과정(face validity procedure)은 보건소 담당자, 성병 및 에이즈 전문가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설문지의 내용은 성병지식, 성병위험인지도, 자기가치, 콘돔사용느낌, 성 건강 자기결정 동기, 성병예방동기, 성 상대와의 관계상황, 콘돔사용 유무,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변수 등으로 구성되었다. 각 측정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성병관련 지식측정

성병 및 성병예방을 위한 콘돔사용과 관련하여 지식을 측정하는 내용으로 총 10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이분척도 (예/아니오)로 측정하였으며, 점수의 범위는 0-1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병관련 지식을 많이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검증결과는 Cronbach alpha=0.70 이었다.

2) 성병감염 위험인지측정

성병 위험인지측정은 여성자신, 성 상대자 그리고 동료에 비하여 자신이 성병에 감염될 가능성에 대한 측정으로 총 3문항으로 구성하였고, 4점 척도(매우 낫다~매우 높다)로 측정하였으며, 점수의 범위는 3-12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병감염 가능성의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인지함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검증 결과는 Cronbach alpha =0.90 이었다.

3) 자기 가치 정서측정

자기가치 정서 측정은 여성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총 5문항으로 구성하였고, 4점 척도(매우 동의한다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로 측정하였으며, 점수의 범위는 5-2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자신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검증결과는

Cronbach alpha = 0.83 이었다.

4) 콘돔사용 정서측정

콘돔사용 정서측정은 콘돔사용에 대한 주관적 느낌을 측정하는 것으로 총 4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3점 척도(동의한다~동의하지 않는다)로 측정하였다. 점수의 범위는 3-12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콘돔사용에 대한 긍정적 느낌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0.77 이었다.

5) 성 건강 자기결정 동기측정

성 건강 자기결정 동기측정은 안전한 성행위에 대한 자신의 의사결정에 대한 동기수준을 측정하는 것으로 총 5문항을 선택하여 구성하였고, 4점 척도(매우 동의한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로 측정하였으며, 점수의 범위는 5-2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안전한 성행위에 대한 자신의 의사결정력 동기수준이 낮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검증결과는 Cronbach alpha = 0.80이었다.

6) 성병예방동기 측정

성병예방동기 측정은 성병감염 예방을 위한 콘돔사용이나 성병치료 행위에 대하여 자신이 어느 정도 동기화되어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총 5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이분척도(동의한다/동의하지 않는다)로 측정하였으며, 점수의 범위는 5-1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병예방을 위한 동기화가 높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검증결과는 Cronbach alpha=0.70 이었다.

7) 성 상대와의 관계상황

성 상대와의 관계상황은 마지막 성 상대자에 대한 정보로서 성 상대자 유형(정기적/일시적), 성 상대자의 콘돔사용선호도(예/아니오)를 조사하였다.

8) 콘돔사용

콘돔사용은 마지막 성 상대자와의 관계에서 실제로 콘돔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유무를 조사하였다.

9) 인구사회학적 배경

인구사회학적 배경으로 연령, 종교, 교육수준, 총 종사기간, 하루 평균 성 상대자 수, 종사유형 등을 조사하였다.

5. 자료수집

연구대상자의 특성상 대상자와의 신뢰감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자료수집자로 보건소 검진 담당 보건간호사를 활용하였으며, 2003년 11월부터 2004년 1월 사이에 보건소 검진 실 또는 상담실에서 직접면접 또는 질문지법에 의하여 자료 수집을 하였고, 자료수집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였다. 둘째 대상자는 동의서를 읽고, 동의하는 대상자는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셋째 질문지의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대상자에게는 직접면접에 의한 질문지조사가 이루어졌고, 이해력이 있고 스스로 응답할 수 있는 대상자는 자가 작성하도록 하였다.

6. 자료 분석 및 통계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12.0)에 의하여 분석하였으며, 통계방법은 인구사회학적 변수, 역동적 심리변수, 성 상대와의 관계상황 변수 등과 성병예방행위인 콘돔사용 유무와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판별분석을 이용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8세로서 20대, 30대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40대가 넘는 대상자도 4명(4.0%)이나 있었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는 과반수 정도(63명, 63.0%)이었고, 그 중에서 불교(47명, 48.0%)가 가장 많았으며,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대상자는 37명(37.8%)이었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중퇴 73명(73.0%), 중학교 졸업/중퇴 16명(16.0%), 대학이상 9(9.0%), 초등학교 2(2.0%) 순이었다. 총 종사기간은 평균 3.8년(SD 2.7)이었고, 하루평균 성 상대자 수는 2.3명(SD 1.6)으로 나타났으며, 종사 유형은 유흥업소와 집락 촌이 각각 50%이었다.

2. 대상자의 역동 심리적 특성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category	content	n	%
Age	21-29	69	69.0
	30-39	27	27.0
	40 <	4	4.0
	Mean (SD)	28.0 (5.0)	
Religion*	Range	21 ~ 44	
	Buddhism	47	48.0
Education	Protestant	9	9.1
	Catholic	3	3.1
	No religion	37	37.8
	Elementary	2	2.0
Type of work	Middle school	16	16.0
	High school	73	73.0
	College or higher	9	9.0
Total years of Employed	Bar-based	50	50.0
	Home-based	50	50.0
Number of Partners (per day)	Mean (SD)	3.8 (2.7)	
	Range	1 ~ 21	

* 'no answer' excluded

대상자의 역동 심리적 특성을 인지, 정서, 동기화 영역으로 분류, 조사하였다(〈Table 2〉). 인지영역에서는 성병지식과 성병감염의 가능성에 대한 위험인지도를 조사하였으며, 조사결과 평균점수는 지식 8.0(SD 1.3), 위험 인지도 6.8(SD 2.0)로서, 성병지식 정도는 높은 수준이지만 자신이 성병에 감염될 가능성에 대한 위험도 인지는 낮게 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정서영역에서는 자기가 치감과 콘돔사용에 대한 느낌을 조사하였고, 조사결과 평균점수는 자기 가치감 10.5(SD 2.2), 콘돔사용 시 느낌 5.6(SD 1.7)으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거나 존중하는 정도는 중간수준을 나타냈으며, 콘돔사용에 대한 정서는 부정적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 동기영역에서는 성 건강을 위한 의사결정력과 성병예방에 대한 동기화를 조사하였고, 조사결과 평균점수는 성 건강 의사결정력 9.9(2.2), 성병예방동기화 7.0(SD 1.3)으로서 안전한 성행위 및 콘돔사용에 대한 의지 정도는 중간 수준이었으며, 성병예방 행위에 대한 자신의 동기화 정도는 낮게 나타냈다.

역동적 심리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한 결과, 인지, 정서, 동기화 요인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지영역 내에서 성병지식수준과 성병감염 위험인지도($r=0.344$, $p<0.01$)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병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일수록 성병감염에 대한 위험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역동적 심리요인과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Table 2〉 Dynamic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category	content	Mean (SD)
Cognitive	Knowledge of STDs	8.0 (1.3)
	Self-Risk Appraisal	6.8 (2.0)
Affective	Feelings of Self-worth	10.5 (2.2)
	Feelings toward Condom Use	5.6 (1.7)
Motive	Sexual Self-determination	9.9 (2.2)
	Desire to prevent STD	7.0 (1.3)

3. 성 상대자와의 관계상황 특성

성 상대자와의 관계상황에 대한 특성은 마지막 성관계를 가진 사람에 대하여 성 상대자의 유형과 콘돔사용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Table 3〉에 의하면, 성 상대자의 유형은 정기적 22(22.2%), 일시적 77(77.8%)를 나타냈고, 선호도는 콘돔사용을 원하는 대상자는 50(51.0%), 원치 않는 대상자 48(49.0%)이었다. 과반수 이상의 대상자는 일시적으로 오는 사람들이었고, 반 수 정도가 콘돔사용을 원함을 알 수 있다.

4. 대상자의 콘돔사용 실태

연구대상자의 72명(75.8%)이 마지막 성관계에서 콘돔을 사용한 것으로 응답했다(Table 4).

〈Table 3〉 Characteristics of sexual partners
n=100

category	content	n*	%
Type of relationship	Casual	77	77.8
	Regular	22	22.2
Preference for condom use	Yes	50	51.0
	No	48	49.0

* 'no answer' excluded

〈Table 4〉 Condom use of sex workers

category	n	%
Yes	72	75.8
No	23	24.2
Total	95*	100.0

* 'no answer' excluded

5. 콘돔사용 행위 예측요인

연구대상자들의 콘돔사용 행위유무의 예측요인을 판별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연령, 종교, 교육수준, 종사유형), 역동적 심리요인(성병지식, 성병감염 위험인지도, 자기 가치 감, 콘돔사용느낌, 성 건강 의사결정력, 성병예방 동기화), 그리고 성 상대와의 관계상황 특성(성 상대자 유형, 성 상대자의 콘돔사용 선호도) 등의 총 12개의 예측인자가 판별함수에 포함되어 분석되었다.

1) 단일예측요인별 집단간 비교

단일예측요인별 집단간 비교를 한 결과에 의하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난 요인은 성 상대자의 콘돔 사용선호도, 성 상대자 유형, 성병예방 동기화, 성 건강 의사결정력, 나이 등이었다(Table 5). 즉 콘돔을 사용하는 집단은 사용하지 않는 집단보다 성 상대자의 콘돔선호자의 비율($p<0.001$)과 일시적 성 상대자의 비율이 높고($p<0.05$), 성병예방을 위한 동기화 수준 ($p<0.05$)과 성 건강에 관한 의사결정력 ($p<0.05$)이 높았으며, 또한 나이가 많을수록 콘돔사용 율이 높음을 보여주었다 ($p<0.005$).

2) 판별기능지수

12개의 판별예측요인들에 대한 판별기능지수는 Wilk's Lambda = .55($p<0.001$)로서 집단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에 의하면 예측변수와 판별함수간의 단순선형 상관관계 계수를 나타내는 구조상관(structure matrix correlations)에 의하여 각 예측변인이 판별함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콘돔사용 유무를 판별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성 상대자의 콘돔선호도이었으며, 그 다음이 성병예방 동기화, 나이, 성 상대자 유형, 성 건강 의사결정력 순이었다.

3) 판별 율

12개의 예측요인에 의한 판별지수를 이용한 판별 율은 콘돔을 사용한 집단(57명)에서 44명(77.2%)이 올바

〈Table 5〉 Wilk's lambda and univariate F ratio

Predictor variables	Use M(SD)	Non-use M(SD)	Wilk's lambda	F	P
SW: Socio-demographic variables					
Age	28.6(5.0)	25.6(3.2)	0.92	6.32	0.01
Education	1.8(0.3)	1.8(0.4)	0.95	0.32	0.57
Religion	1.4(0.5)	1.4(0.5)	0.99	0.16	0.69
Type of work	1.5(0.5)	1.4(0.5)	0.98	0.92	0.33
Partners: Characteristics					
Type of relationship	1.8(0.3)	1.6(0.4)	0.95	3.90	0.05
Partner preference on condom use	1.3(0.4)	2.0(0.0)	0.62	45.48	0.00
SW: Dynamic Psychological variables					
Cognitive knowledge of STD	8.0(1.4)	7.9(1.3)	1.00	0.33	0.85
Self-Risk appraisal	6.7(2.0)	7.1(1.9)	0.99	0.64	0.42
Affective Feelings of self-worth	4.0(1.1)	3.8(1.2)	0.99	0.76	0.38
Feelings toward condom use	2.3(0.7)	2.4(0.7)	0.99	0.78	0.37
Motive sexual self-determinism	4.4(1.0)	3.8(1.1)	0.95	3.80	0.05
Desire to prevent STD	4.2(1.0)	3.5(1.2)	0.91	6.95	0.01

르게 적중되었고, 13명은 빗나간 예측을 하였다. 또한 콘돔을 사용하지 않은 집단(20명)에서 적중율은 100.0%로서 콘돔을 사용한 집단의 예측율보다 높다. 판별분석에서 제외되었던 13명은 모두 콘돔사용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반적 예측율은 83.1%를 나타냈다.

〈Table 6〉 Discriminant loadings by predictor variables

Predictor variables	Loadings*
Preference for condom use	0.85
Desire to prevent STD	-0.33
Age	-0.32
Type of relationship	-0.25
Sexual self-determinism	-0.25
Type of work	-0.12
Feelings toward condom Use	0.11
Feelings of self-worth	-0.11
Self-risk appraisal	0.10
Education	-0.07
Religion	0.04
Knowledge of STDs	-0.02

* Considered meaningful if >0.25

IV. 논의

1. 모형의 타당성

대상자 상호작용모형은 건강행위를 설명하는 서술적 연구에서 그 타당성을 입증한 바 있으며(Cox, 1985; Marion & Cox, 1996). 본 연구에서도 성병예방행위를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하여 적용한 결과 모형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즉 본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인구학적 및 역동적 심리요인 그리고 성 상대자와의 관계 상황 등의 총 12개 요인들은 콘돔사용행위에 대하여 83.1%라는 높은 예측율을 보여주었으며, 또한 인지, 정서, 동기 등의 심리요인 들 간에는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음으로서 모형에서 제시한 문제의 타당성을 뒷받침하였다.

2. 콘돔사용 행위예측요인

성 매매 종사자들에 대한 콘돔사용에 대한 연구는 에이즈를 포함한 성병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성병

감염의 특성을 살펴보면, 성 매매 관련 종사자들의 감염율이 가장 높으며, 또한 에이즈의 경우도 성 접촉에 의한 감염율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1985년 이후 성 매매 종사자들의 콘돔사용정책(all-condom policy)이 실시되면서, 성 상대자의 저항이 있거나 또는 여성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Rosenberg, & Weiner, 1988) 약 80% 이상이 “때때로 콘돔사용”으로 보고하였다(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2). 최근에는 콘돔사용 유무보다도 지속적으로 그리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성병감염 예방에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성 매매 여성들의 콘돔 사용율에 대한 연구조사결과를 보면, “언제나 콘돔 사용”율은 6%~67% 수준으로(Joesoef et al., 1997; Weir et al., 1998; Wilson et al., 1990; Zachariah et al., 2003), 연구결과의 신뢰도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연구대상자의 특성 및 측정의 한계성에 기인되는 결과로 사려된다. 본 연구에서는 마지막 성 상대자와의 관계에서 콘돔사용 유무를 측정한 결과 75.8%의 콘돔사용율을 나타냈으나, 앞서 제기된 것과 같은 문제가 내재되어 있을 것으로 추론하며, 추후에는 보다 다각적인 콘돔사용 행위측정방법의 보완으로 “지속적인 콘돔사용”과 관련이 요인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성 매매 종사여성의 콘돔사용 유무는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Campbell, 1991). 예를 들면 성 상대자의 콘돔사용에 대한 저항이나 거부감이 없는 경우, 성 상대자가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일시적 성상대자인 경우(Miller et al., 2004; Zacharich et al., 2003)에는 콘돔사용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성 상대자의 콘돔선험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가장 높은 상관지수를 나타냈으며, 성 상대자의 유형(정기/일시)도 주요 예측인자로 나타남으로써, 같은 경향을 보여주었다. 또한 안전한 성 행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병지식, 위험인지에 대한 평가, 동기 그리고 정서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콘돔사용 유도를 위한 의사소통기술 및 협상능력이나 통제력 등이 요구된다. 그러나 성매매 종사여성들은 일반적으로 낮은 교육수준(Joesoef et al., 1997; Uribe-Salas, Conde-Glez, Juarez-figueroa & Hernandez-Castellanos, 2003), 사회적 낙인에 의해 절하된 사회적 정체성(Miller & Kaiser, 2001), 성에 대한 사회 문화적 규범으로 인하여 성 관

계상황에서 권력의 불균형, 안전한 성 행위에 대한 통제력 부족(Ulin, 1992), 낮은 동기수준(Asamoah-Adu, et al., 1994; Campbell, 1991) 등으로 성 행위에 의한 성병감염의 위험을 낮게 인지하는 특성을 지닌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연구대상자들은 성병감염위험에 대한 인지도가 낮게 나타났고, 콘돔사용에 대한 정서가 부정적인 경향이 있었으며 그리고 성병예방을 위한 동기화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콘돔사용 행위를 예측하는 역동 심리적 요인으로는 성병예방을 위한 동기화 수준과 성 건강에 대한 의사결정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선행연구에서 콘돔사용 행위와 관련된 요인으로 제시된 콘돔사용의 유익성(Wilson et al., 1990)이나 효능감(Ao et al., 2003)등의 요인들과 직접적 관련은 없다하더라도 동기유발을 시킬 수 있는 심리요인이라는 점에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콘돔 사용 이행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병예방을 위한 동기 수준을 높이고, 콘돔사용 행위유도를 위한 의사소통기술 훈련을 통하여 성 행위에 대한 통제력 및 의사결정력을 갖도록 하는 중재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추후 반복연구 및 심층연구를 통하여 구체적 심리요인에 대한 규명이 요구된다.

V. 결론 및 제언

최근 우리나라 성병감염율의 급증은 성병감염예방관리의 중요성을 말해 주고 있으며 이를 위한 콘돔프로그램은 성 매매 종사자들에게는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대상자 건강행위에 대한 상호작용모형을 활용하여 콘돔사용 예측요인을 검증한 결과, 첫째 모형의 타당성을 뒷받침 하였고 둘째 주요 예측요인으로는 성 상대자와의 관계 상황과 동기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콘돔사용 행위가 자가 보고에 근거하였고, 또한 획단적 조사연구에 의한 것으로 인과관계를 규명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지만, 본 연구결과는 성병예방중재프로그램 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해 주며, 나아가 성병감염 예방관리를 통해 성 매매 종사자들의 인권보호에 접근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추후 연구방향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 건강행위 상호작용 모형을 활용한 반복연구를 수행한다.

둘째 지속적 콘돔사용과 관련된 요인을 규명하는 연구를 수행한다.

셋째 내적 동기 유발 및 의사소통 기술 훈련이 포함된 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한다.

References

- Abel, E., Tak, S. H., & Gortner, E. (2003). Reliability and validity of motivation for sexual health. *Western Journal of Nursing Research*, 25(5), 548-556.
- Ao, T., Sam, N., Manongi, R., Seage, G., & Kapiga, S. (2003). Social and behavioural determinants of consistent condom use among hotel and bar workers in Northern Tanzania. *International journal of STD & AIDS*, 14, 688-696.
- Asamoah-Adu, A., Weir, S., Pappoe, M., Kanlisi, N., Neequaye, A., & Lamptey, P. (1994). AIDS, 8(2), 239-246.
- Campbell, C. A. (1991). Prostitution, AIDS, and preventive health behavior. *Social Science, & Medicine*, 32(12), 1367-1378.
-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3). Program operations: Guidelines for STD prevention. retrieved on June 9, 2003 from www.cdc.gov
- Cohen, J., Alexander, P., Wofsy, C. (1988). Prostitutes and AIDS: Public Policy Issues. *AIDS & Public Policy Journal*, 3, 16-22.
- Cox, C. L. (1985). The Health Self-Determinant Index. *Nursing Research*, 34(3), 177-183.
- Cox, C.L. (1982). An interaction model of client health behavior: Theoretical prescription for nursing. *Advances in Nursing Science*, 5(1), 41-56.
- Ford, K., & Norris, A. E. (1993). Knowledge of AIDS transmission, risk behavior, and perceptions of risk among urban, low-income, African-American and Hispanic youth.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9, 297-306.
- Joesoef, M. R., Kio, D., Linnan, M., Kamboji, A., Barakbah, Y., Idajadi, A. (2000). Deter-

- minants of condom use in female sex workers in Surabaya, Indonesia. *International Journal of STD & AIDS*, 11, 262-265.
- Joesoef, M. R., Linnan, M., Barakbah, Y., Idajadi, A., Kambodji, A., & Schulz, K. (1997). Patterns of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in female sex workers in surabaya, Indonesia. *International Journal of STD & AIDS*, 8, 576-580.
- Korea Institute of Criminology (2002). a nationwide survey on prostitutes.
-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4). *Statistics of STDs & AIDS*. <http://dis.cdc.go.kr>
- Lowndes, C. M., Alary, M., Platt, L. (2003). Injection drug use, commercial sex work, and the HIV/STI epidemic in the Russian Federation.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30(1), 46-48.
- Marion, L. N., & Cox, C. L. (1996). Condom use and fertility among divorced and separated women. *Nursing Research*, 45(2), 110-115.
- Marion, L. N., Dancy, B. L., Talashek, M. L., Howard, M., & Freels, S. A. (1999). STD prevention for at-risk African American Women(RO1 NR04836-01, 1999-2003).
- Miller, G. A., Mendoza, W., Krone, M. R., Meza, R., Caceres, C. F., Coates, T. J., Klausner, J. D. (2004). Clients of female sex workers in Lima, Peru.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31(6), 337-342.
- Miller, C. T., & Kaiser, C. R. (2001). A theoretical perspective on coping with stigma. *Journal of Social Issue*, 57(1), 73-92.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senberg, M., Weiner, J. M. (1988). Prostitutes and AIDS: A Health Department Priority.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78(4), 418-423.
- Sohn, M., & Jin, K. (1999). AIDS-related perceptions and condom use of prostitutes in Korea, *Yonsei Medical Journal*, 40(1), 9-13.
- Uribe-Salas, F., Conde-Glez, C., Juarez-figueroa, L., Hernandez-Castellanos, A. (2003). sociodemographic dynamics and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s in female sex workers at the Mexican-Guatemalan Border.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30(3), 266-271.
- Weir, S. S., Fox, L. J., DeMoya, A., Gomez, B., Guerrero, E., & Hassig, S. E. (1998). Measuring condom use among sex workers in the Dominican Republic. *International Journal of STD & AIDS*, 9, 223-226.
- Ulin, P. R. (1992). African Women and AIDS: Negotiating behavioral change. *Social Science & Medicine*, 34(1), 63-73.
- Wilson, D., Sibanda, B., Mboyi, L., Msimanga, S., Dube, G. (1990). A pilot study for an HIV prevention programme among commercial sex workers in Bulawayo, Zimbabwe. *Social Science & Medicine*, 31(5), 609-618.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0). Women and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s. *Fact Sheet No.249*.
- Zachariah, R., Spielmann, M. P., Harries, A. D., Nkhoma, W., Chantylo, A., Arendt, A. (2003).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s and sexual behaviour among commercial sex workers in a rural district of Malawi. *International of STD & AIDS*, 14, 185-188.

- Abstract -

Factors Predicting Condom Use for the Prevention of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among Sex Workers*

Ahn, Yang Heui**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factors to predict of condom use for the prevention of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STDs) among sex workers in a Korean community. The theoretical ground of this study was the Interaction Model of Client Health Behavior. **Method:** A descriptive, cross sectional and retrospective research design was employed in this study. A total of 100 sex workers who take a clinical check-up on STDs regularly at W Public Health Center were recruited by convenient sampling, and with consent to

participate in this study. All of the measures were piloted, and the reliability of each scale ranged from 0.7 to 0.9. Data were analyzed using discriminating function analysis with SPSS-PC. **Results:** Five independent measures (partner preference for using condoms, subjects desire to prevent STD, age, type of relationship and sexual self-determination)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the best discriminating function. The discriminating function analysis resulted in correct classification of 83.1% of the respondents into their corresponding groups. **Conclusion:** Condoms are a main means of STDs prevention. Risk-reduction interventions that enhance communication skills and intrinsic motivation will be effective in increasing condom use to prevent STDs among sex workers.

Key words : Condom-use, STD prevention,
Prostitution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grant from Yonsei University Wonju College of Medicine.

**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Wonju College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